

# 독서... 피서... 휴가철 소설 '열풍'

독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르는 소설이다. 이야기를 매개로 하는 소설은 문학의 본령이 꼽힐 만큼 독자들에게 친숙한 장르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서점가와 출판계에 소설 열풍이 불고 있다. 소설의 귀환을 넘어 소설의 반격이라 해도 무방할 만큼 출판시장에 소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최근 매년 감소세를 보이던 도서 판매가 상반기에 2% 증가했다. 이 같은 양상을 이끈 것은 문학 분야로, 상반기 소설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 늘었다.

사실 지난 2~3년간은 출판계의 불황으로 자기계발서와 에세이, 심리학 관련 서적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그러나 소설 판매량이 늘어남에 따라 강세를 보이던 자기계발서, 에세이 등이 다소 주춤한 상태다. 이 같은 사실은 예스24, 알라딘과 같은 국내 유명 서점의 베스트셀러 순위에도 드러나 있다.

현재 예스24의 7월 셋째 주 베스트셀러 상위권에는 조정래 '풀꽃도 꽃이다 1·2', 한강 '채식주의자', 정유정 '종의 기원'이

## '채식주의자' 맨부커상 이후 한강·조정래·정유정 등 베스트셀러 작가들 잇따라 출간 독자들에게 '행복한 여름' 선물

각각 1·2위, 4위, 5위에 올랐다. 알라딘의 경우도 1위 한강 '채식주의자', 2위와 4위에 조정래 '풀꽃도 꽃이다 1', '풀꽃도 꽃이다 2'가 차지했다. 역시 5위는 정유정 '종의 기원'이 올랐다. 소설의 열풍은 지난 5월 한강 작가의 '맨부커상' 수상이 기폭제가 됐다. 소설에 무관심했던 독자들이 맨부커상 수상을 계기로 다시 손을 내밀면서 휴가철과 맞물린 독서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킨 것이다. 알려진 대로 한강의 수상작 '채식주의자'는 맨부커상 수상 직후 무서운 속도로 주요 서점 베스트셀러에 진입했다. 예스24에서는 수상 하루 만에 판매량 1만 권을 돌파했으며, 최근 15년간 가장 빠르게 팔린 도서 기록을 갈아치우기도 했다.

한강의 다른 소설도 독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특히 '소년이 온다'는 광주의 5월을 다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작품은 국가 폭력이 어떻게 어린 생명들까지 죽음에 이르게 했는가를 추적했다는 점에서, 어른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던 기존의 오월문학과 변별된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소재로 한 신작 '흰'도 주목을 받으면서 한강은 하반기에도 소설 열풍을 견인할 주인공으로 점쳐진다.

최근 교육 관련 소설을 출간한 작가 조정래의 상승세도 가파르다. '풀꽃도 꽃이다 1·2' 모두 출간 즉시 상위권에 진입하면서 "역시 조정래"라는 이름값을 증명했다. 2013년 '정글만리' 이후 3년 만에 펴낸 신작이 교육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최근 나향욱 전 교육부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 망언과 맞물려 이목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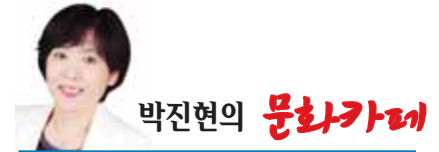
그동안 압도적인 서사와 폭발적인 이야기 힘으로 관심을 모았던 정유정 작가의 소설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2013년 장편 '28' 이후 3년 만에 펴낸 '종의 기원'에서 작가의 '악(惡)'에 대한 탐구는 더 깊어졌

다는 평가다. '홍행보증수표'라는 명칭답게 정 작가의 소설은 무더위를 잊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주목받고 있다.

문학성을 갖춘 지명도가 높은 작가들의 잇따라 출간도 소설 열풍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은희경, 윤대녕, 박상우, 조정래 등은 고정적인 독자층을 확보한 작가들로 하반기 소설시장을 일정 부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은희경의 '중국어 톨렛'은 6편의 단편이 실린 작품집으로 숲, 웃, 수줍, 신발 등 일상상의 것들을 모티브로 삼고 있으며 윤대녕은 장편 '피에로들의 집'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존재들의 삶에 초점을 맞췄다. '비밀문장'과 '후후후의 숲'으로 돌아온 박상우는 조정래도 독자들의 관심이 기대되는 작가들이다. 김탁환('아편전쟁'), 김숨('1의 운동화'), 정지돈(내가 싸우듯이), 박솔미('머리부터 천천히') 등 작가들 또한 후속작을 펴내 독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이래저래 소설을 좋아하는 독자들에게는 행복한 여름이다.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데

최근 유럽의 예술교육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런던과 파리의 미술관, 공연장을 둘러보고 왔다.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불리는 이들 도시는 명성 그대로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문화시민들을 길러내고 있었다. 도시 전체가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거대한 '문화사랑방'이었다.

무엇보다 인상깊었던 건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던 미술관이었던. 첫 방문지였던 런던의 테이트 모던 미술관을 비롯해 내셔널 갤러리, 빅토리아 & 앨버트 미술관,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 퐁피두 센터, 오랑주리 미술관은 인파로 가득했다. 워낙

서부터 반 다이크까지 '전, 빅토리아 & 앨버트 미술관에서는 르네상스 시대 화가 보티첼리가 후세의 아티스트에게 어떤 영감을 주었는지 되돌아보는 '보티첼리 리이미네진'(Botticelli Reimagined) 등을 선보였다.

파리의 미술관도 마찬가지였다. 세계적인 현대미술의 메카 퐁피두 센터 입구에는 추상회화의 거장 '파울 클레'전을 감상하기 위해 오전 9시부터 몰려든 방문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오르세 미술관은 '앙리 루소'전을, 오랑주리 미술관은 클로드 모네의 '수련'연작과 인상파 화가들의 명작을 보려는 관람

## 여름 '미술관 피서' 떠나자

빠어난 컬렉션을 자랑하는 미술관인 만큼 당연한 일이지만 입장권을 끊기 위해 길게 늘어선 관람객들을 접하자 새삼 부러운 마음이 들었다.

늘 한산하기만 한 지역의 미술관을 이 떠올라서였다. 휴가시즌에는 산과 바다로 떠나는 피서객들이 많아 도시의 미술관과 갤러리는 개점휴업(?) 상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맘 때면 런던이나 파리의 미술관은 밀려드는 방문객들로 즐거운 비명을 지른다. 여름휴가를 맞아 가족과 함께 미술관에서 예술 작품을 즐기며 시간을 보내는 문화 피서객이 대거 몰려들기 때문이다. 이들은 세기의 명작은 물론 바캉스 시즌에 맞춰 미술관들이 자체 기획한 특별전을 관람하면서 무더위를 잊는다.

이번 취재기간 동안 둘러본 유명 미술관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굵직한 기획전들을 내놓았다. 테이트 모던에서는 미국의 대표적인 여성 화가 '조지아 오키프'전을, 내셔널 갤러리에서는 '루시안 프로이드에

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이처럼 방학과 휴가가 겹치는 여름시즌은 미술관에게는 관객 유치에 가장 좋은 성수기다.

실제로 지난 2012년 미국 미술관 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Museums)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술관(중·식물원 등 포함)은 휴가 기간동안 가족들이 함께 가볼 수 있는 '넘버 3 여행지'로 꼽혔다. 미국인 3분의 1은 휴가 시즌에 미술관, 역사관, 동물원, 과학관 등을 방문하며 하루 평균 230만명(연평균 8억6천500만 명)이 미술관을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휴가시즌이다. 산도 좋고 바다도 좋지만 올해는 특별한 문화피서를 보내면 어떨까. 광주와 전남에는 수많은 미술관들이 있는 만큼 한나절 짬을 내 가족들과 함께 예술작품을 감상한다면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다. 그러려면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어 모을 만한 미술관의 볼거리가 풍성해야겠다.

<편지부국장·문화선임기자>

## 광주시립미술관, '동아시아 미술의 탄생' 강좌

광주시립미술관이 20일 오후 3시 상록전시관 세미나실에서 상록인문학강좌 다섯번째 강의를 연다. 이번 행사는 김영순 부산시립미술관장이 강사로 나서 '동아시아 미술의 탄생'을 주제로 강의를 펼친다.

김 관장은 산업자본주의와 근대국가의 정치 속에서 미술이란 용어가 어떻게 탄생하고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았는지를 알려준다. 또 아시아 '미술'이

탄생하게 된 배경인 박람회와 미술관이라는 전시제도를 살펴본다.

김 관장은 예술의전당 예술감독, 대우문화재단 영은미술관장을 역임했다. 동경대학 대학원 문화사학과 객원연구원, 한일현대미술교류전 기획, '뮤지엄서밋' 연구발표 등 국내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문의 062-613-7134.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천상의 목소리 광주에 퍼진다

## '팜페라 여왕' 사라 브라이트만 27일 광주여대서 공연

'팜페라 여왕, 천상의 목소리로 노래하다.' 세계적인 팜페라 가수 사라 브라이트만이 광주 공연을 갖는다. 27일 오후 8시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조경기장.

광주 공연은 지난 2013년 우주를 컨셉으로 펼쳐진 'DREAM CHASER'에 이어 두번째다. 내한 공연 때마다 업그레이드 된 무대, 압도적인 사운드를 선보여온 사라 브라이트만은 'GALA WITH ORCHESTRA'라는 타이틀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서 자신의 밴드와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로 구성된 60인조 오케스트라와 무대에 선다.

1981년 영국 런던에서 초연한 뮤지컬 '캣츠'를 통해 이름을 알린 그녀는 1986년 '오페라의 유령'에 출연하며 세계적 뮤지컬 스타의 자리에 올랐다. 또 '클래시컬 크로스오버' 장르를 개척하고 11장의 정규 앨범으로 30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이번 공연에는 런던 웨스트엔드 '레미제라블', '오페라의 유령'에 출연하고 2004 그리스 올림픽 성화

릴레이 당시 공연을 펼쳤던 테너 마리오 프랑골리스가 메인 테너로 참여, 사라 브라이트만과 함께 호흡을 맞춘다. 또 '꽃피는 테너'로 주목 받고 있는 나리스스와 중국계 미국인 피아니스트 디우도 참여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오페라의 유명 주제가인 'PHAN-POM OF THE OPERA', 'TIME TO SAY GOODBYE', 'NELLA FANTASIA', 'AVE MARIA' 등 주목할 만한 명곡들을 만날 수 있다.

이번 투어는 특히 사운드에 중점을 둔 클래식 공연인 만큼 미국 현지 음향 스텝과 음향기기 공수에 큰 공을 들였다.

공연 입장권은 와이티켓, 인터파크, 티켓링크 등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티켓 가격은 19만 8000원~11만 9000원이다.

한편 주최측은 공연이 열리는 27일이 '문화가 있는 날'임을 감안,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1+1' 이벤트를 진행한다. 문의 1566-6728, 070-7844-666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식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광주맛집 5회 연속 선정**

세미나, 연회장, 상견례, 가족모임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 www.geumsoojang.com |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 예약문의 (062)525-2111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4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컬러지 제원키랄로그에서 만나보세요

Step 1. 방수장리  
 Step 2. 단열방수시트  
 Step 3. 외벽아트패션시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징점

- 1/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 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2/ 건축 내외장재 패던디자인이 잔 엔디나외의 클라보 디자인!
- 3/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헐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4/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만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특허번호: 10-0562035호, 10-1097784호, 10-0549189호

2중안벽 단열방수, 냉난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6년 무상 A/S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시험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 010-6603-0405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